

『어면순』과 『각수록』의 골계미 비교 연구

홍서희*

〈차 례〉

1. 서론
2. 연구 대상과 방법
3. 『어면순』의 해학적 요소
4. 『각수록』의 풍자적 요소
5. 결론

[국문초록]

본 논문은 『어면순』과 『각수록』의 골계미적 형식을 살펴봄으로써 조선 전기와 후기 성소화의 차이점, 특히 상이한 웃음의 방식을 밝히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구체적 작품 분석을 통하여 어떤 요소들이 상이한 웃음의 방식에 기여하는지 살펴보았다.

『어면순』 성소화의 해학적 요소로 과장되고 희화화된 인물형, 우스꽝스러운 장면의 집약적 연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인하여 독자가 서술자의 희화화된 서술 태도를 수용하게 되는 점 등을 꼽았다.

『각수록』 성소화의 풍자적 요소로 비인간적 인물형, 양반 풍자 소재, 서술자의 관찰자적 태도로 인하여 인물의 내면 묘사가 절제되고 상황이 객관적으로 전달됨으로써 독자가 이야기에 비판적 거리를 취하게 되는 점 등을 꼽았다.

조선 전기 사회에서 성소화는 성리학적 지식체계의 결여를 보충하면서도 공적 영역에서는 은폐되는 은밀한 지식으로 통용되었다. 『어면순』의 성소화는 민중의 구비적 이야기가 다수 수록되어 있지만 기존의 사대부적 가치를 깨뜨리지 않고 해학적 요소를 통하여 당대 사회와 조화를 이룬다.

그러나 조선 후기의 성소화인 『각수록』은 일그러진 성을 통해 당대의 사회적 이데올로기를 부정하고 지배 계층인 양반에 대한 조롱과 비꼴을 보여주는 데에까지 나아간다. 이는 풍자를 넘어서 본격적인 사회비판으로까지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성소화, 『어면순』, 『각수록』, 골계, 해학, 풍자

*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일반연구원

1. 서론

패설(稗說)은 압박하게 쓰인 글을 이른다. 많은 연구자들이 패설을 패설일 수 있게 하는 내적 질서로 ‘웃음’을 들고 있다. 따라서 패설 대신 ‘소화(笑話)’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패설은 골계미를 가장 잘 담아낸 장르로 이러한 골계미는 인간의 행동을 모방하는 방식에서 온다. 즉 패설은 ‘인간의 행동을 모방하여 그려내되 그 미의식이 골계미에 놓인 일련의 작품’으로 정의한다.¹⁾ 패설은 인간의 삶이 아닌 행동을 모방하기에 편폭이 단소하며 사건이 일회적인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일군의 작품은 1958년 민속학자료간행회에서 유인(油印)하여 출간한 『고금소총(古今笑叢)』에 수록되어 있다. 이 책에는 15세기 서거정에 의해 찬집된 『태평한화골계전』에서부터 19세기 말엽에 찬집된 것으로 추정되는 『교수잡사』까지 총 11종의 작품집이 수록되어 있다. 이밖에 『소낭』, 『각수록』, 『과적록』, 『거면록』, 『선언집』 등의 패설집이 발굴되었다.²⁾

패설에는 성(性)과 관련된 이야기가 포함된다. ‘성행위나 성기와 같이 비속하고 외설적인 소재를 중심 화제로 삼고 있는 이야기’로 음담(淫談), 육담(肉談), 성소화(性笑話) 등으로 불린다. 본고에서는 성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전해주는 골계미에 주목하고자 ‘성소화(性笑話)’라는 명칭을 사용하고자 한다. 소화는 웃음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때의 웃음은 한바탕 웃는 일회적 웃음부터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냉소적 웃음까지 다양한 종류의 웃음을 포괄한다. 웃음의 이면에는 시대적 배경이나 찬자의 사회적 지위와 성향에 따른 찬자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³⁾

조선은 성리학적 이념이 지배하던 사회로 공식적 영역에서는 성(性)의 표현이 억압되었으나 성소화는 사대부들에게 공공연하면서도 은밀한 지식으로

1) 김준형, 『한국패설문학연구』, 보고사, 2004, 33~34쪽.

2) 『고금소총』에 800여 편, 이밖에 700여 편의 패설이 전한다. 『고금소총』 수록 작품집은 『태평한화골계전』, 『촌담해이』, 『어면순』, 『속어면순』, 『명엽지해』, 『과수록』, 『어수신화』, 『진담론』, 『성수패설』, 『기문』, 『교수잡사』 등 총 11종이다. (김준형, 『한국패설문학연구』, 보고사, 2004, 48~49쪽)

3) 김준형, 『한국패설문학연구』, 보고사, 2004, 12~13쪽.

향유되었다.⁴⁾ 열절(烈節)이라는 엄격한 유교적 성윤리는 일부 상층 여성에게만 해당되었다. 상층 여성에게 가해진 성적 억압은 혈통의 순수성 보존을 통한 신분제 유지를 위한 수단이었으며, 사대부 남성의 축첩으로 인하여 하층에서는 소대남편, 화첩 등의 중복혼이 광범위하게 유지되었다.⁵⁾ 즉 성은 철저히 사회적 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성소화에 그려진 성(性) 역시 조선 유교 사회의 남녀 차별적, 신분 차별적 질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⁶⁾

필자는 성(性) 이야기의 이면에 숨겨진 사회적 질서나 권력의 문제를 다룬 선행 연구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한편, 패설의 본령인 ‘웃음’에 주목하고자 한다. 골계미는 패설의 정체성이며 패설집이 500여년 이상 꾸준히 찬집되고 향유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다. 그러나 패설집에 그려진 골계미의 정조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 모습이 다르다. 특히 조선 후기는 조선 전기와 비교하여 시대적 분위기, 사회적 상황, 문학적 여건 등이 급변하였기에 이에 따른 문학의 흐름 역시 크게 달라졌다.⁷⁾ 조선 전기와 후기 패설의 사적 흐름에 대한 개관은 몇몇 연구에서 진행된 바 있다.⁸⁾

조선 전기 패설이 사대부 계급의 일화적 내용 등 주로 개인적 관심을 드러내고 있는 데 반해 조선 후기 패설은 당대 현실에 대한 비판이나 민중들의 사회의식 등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경향이 있다. 패설집에는 구비적 이야기가 수록되지만, 이는 채록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는 것이므로 패설집에는 찬자의 일정한 관점이 드러나게 된다. 조선 전기 패설집이 문명 높은 사대부에 의해 편찬되고 그 주변인들에게 향유되었다면, 조선 후기에는 봉건 질서

4) 강상순, 「조선 전기 성소화의 향유 양상과 존재 논리」, 『Journal of Korean Culture』 22, 2012, 120쪽.

5) 정병설, 「조선 후기 성의 실상과 배경 - 『기이재상담』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64,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0, 193~197쪽.

6) 이러한 측면에 주목한 연구로 류정월(2007), 유혜인(2019), 이지환(2019) 등을 들 수 있다. 이 연구들은 조선 전기 성소화집을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성소화의 남녀 차별적, 신분 차별적 요소는 조선 후기 성소화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7) 문학 외적 요인으로 인하여 조선조 문학사의 흐름이 전환되는 기점을 17세기와 19세기로 보고, 이러한 흐름에 따라 패설을 15~16세기, 17~18세기 초, 18세기 중~19세기로 삼분하여 살펴보았다. 중기 패설은 초기와 후기 패설의 특성을 공유한다고 보았다. (김준형, 『한국패설문학연구』, 보고서, 2004, 55~60쪽)

8) 김영준(1985, 1993), 황인덕(1999), 김준형(2004) 등을 들 수 있다.

의 토대가 흔들리고 성에 대한 표면적 억압이 강화되면서 찬자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골계의 차원에서 패설의 흐름을 살펴보면, 정치 사회적 이념이 안정되어 패설이 일상적 삶의 일부로 관찰되고 기록되는 조선 전기에는 패설의 웃음이 폭넓고 포용적인 데 반해 사대부 중심의 사회적 질서가 흔들리고 실제적 효용의 측면에서 사고하려는 비판 의식이 높아지는 조선 후기에 패설은 자각을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그 웃음은 폭이 좁고 포용력이 약아지게 된다. 이러한 흐름은 성 이야기를 다룬 소화에도 통용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소화의 골계적 흐름을 개별 소화를 통하여 살펴본 연구는 없다. 따라서 조선 전기와 후기를 대표하는 성소화집을 선정하여 성소화의 사적 흐름을 골계미의 차원에서 구체적 작품 분석을 통하여 논증해보려 한다.

2. 연구 대상과 방법

조선 전기와 후기를 대표하는 성소화집으로 각각 『어면순』과 『각수록』을 꼽았다. 『어면순』 이전에도 『태평한화골계전』, 『촌담해이』 등의 패설집이 있었으나, 성소화를 본격적으로 다룬 패설집은 『어면순』이라 할 수 있다. 찬자인 송세림(宋世琳, 1479~1519)은 과거에 합격했으나, 부모님의 상(喪)을 연달아 당하며 병마(病魔)를 얻게 되어 결과적으로 사화의 정치적 소용돌이를 피하게 되었다. 이후 고향인 태인(泰仁)에 정착해서 민간의 이야기를 수집하여 기록한 것이 『어면순』이다. 『어면순』은 『고금소총』에 상권 20편, 하권 62편으로 함께 82편의 이야기가 전해진다. 상권에는 논평이 달려 있지만 하권에는 논평 없이 이야기만 수록되어 있다. 전체 이야기 중 53편이 성소화에 해당한다.

『어면순』은 성소화의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양반, 기생, 무인, 승려, 일반 백성 등 다양한 인간 군상들의 구비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사대부 일화

답이 많은 『태평한화골계진』이나 질서와 조화로우음을 추구한 『촌담해이』와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찬자인 송세립의 전기적 사실과 연관 지어 논의되어왔다. 즉 재주와 재능이 있었으나 당대에 뜻을 펼치지 못한 찬자의 분울함을 성(性)을 통해 토로하고 있다는 견해이다.⁹⁾ 『어면순』의 발문에서도 찬자가 조정에서 쓰임을 받았다면 이 같은 기록을 일삼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며 골계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권장하고 징계하는 유교의 뜻을 헤아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어면순』 상권을 살펴보면, 발랄하고 생기 넘치는 성적 이야기에 비하여 찬자의 논평은 사뭇 진지하고 도덕적이다.¹⁰⁾

이렇듯 모순적인 『어면순』의 면모에 대해서는 양 측면에서 논해졌다. 윤석산(2000)은 『어면순』의 민중적 성격에 주목하여 『어면순』이 양반 중심 혹은 남성 중심의 사회 통념을 비판한 작품집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임완혁(2006), 정환국(2012), 강상순(2012) 등 다수의 논의는 『어면순』을 사대부 문화의 자장 아래 향유된 패설집으로 규정하고 있다. 심지어 유해인(2019)은 『어면순』의 성적 욕망이 대상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운용되었으며 결론적으로 소화의 웃음은 사대부 남성의 전유물이었음을 지적한다. 『어면순』 서문과 발문의 ‘유희보다 유교적 뜻’을 살피라는 당부, 상권의 당위적이고 유교적인 논평, 사대부들의 공모 의식이 담긴 이야기¹¹⁾ 등을 살펴볼 때, 『어면순』이 사대부 문화의 틀을 일탈했다는 해석은 과도하다고 보인다. 찬자의 분울함으로 인하여 성(性)과 민중의 이야기에 천착했을 수 있으나 이러한 불만이 사회적 차원으로까지 확장되었다고 보기 힘든 것이다.

조선 후기의 성소화집으로 『각수록』을 다루고자 한다. 『각수록』은 20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찬집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9) 김준형, 『한국패설문학연구』, 보고사, 2004, 60~61쪽.

10) 일례로 「오자조부(五子嘯父)」는 아들이 다섯 있는 가난한 부부의 이야기로, 아들들은 동생이 태어나면 안 된다며 부모님의 합환을 방해한다. 말미에 찬자는 논평을 통하여 부모를 조롱하는 아들의 행동을 불효라며 꾸짖는다.

11) 일례로 「의관자제(衣冠子弟)」는 어느 양반이 술에 취해 급한 마음에 옷도 제대로 벗지 못하고 침선 비인 분금이를 벌히는 모습을 보며 친구들이 “아이가 태어나면 의관자제는 될 것”이라며 한바탕 웃는다는 내용이다.

본이 유일하며, “原本李在瑛藏”와 “西紀 一九四三年 十一月 曆寫”라는 기록을 통해 이재영 소장본을 필사한 것이고 필사 시기는 1943년 11월임을 확인할 수 있다.¹²⁾ 총 25편의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모두 성(性)과 관련되며, 논평이 사라지고 이야기 자체의 흥미가 우선시 되는 조선 후기 패설의 경향을 보여준다. 『각수록』과 비슷한 시기의 것으로 『기문』, 『과적록』 등에도 성 이야기가 적잖이 실려 있으나 『각수록』에 수록된 이야기는 모두 성 담론이고 그 내용이 비도덕적, 반윤리적 성을 다루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김준형(2005)은 『각수록』에서 보이는 반윤리적인 성 이야기가 어떻게 당대 독자들에게 수용되었을까 하는 점에 대하여 『각수록』의 이야기가 널리 향유되던 이야기 혹은 전대의 문헌을 활용하였다고 보았다. 즉 전대 문헌의 이야기들을 성(性)적 측면에 맞추어 수용하고 구체적 내용 역시 비윤리적, 반사회적인 방향으로 변개했다는 것이다. 이렇듯 이야기의 개작 방향이 일정하고 「현풍밀양(玄風密陽)」, 「반남무안(潘南務安)」 등 어희(語戲)가 중심이 되는 이야기가 많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각수록』의 찬자는 일정 수준의 식견을 갖춘 인물로 짐작된다.

『각수록』의 수록 이야기가 모두 성소화이고, 일관되게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 성을 그렸다는 점은 그 자체로 시사적이다. ‘성(性)’을 통하여 전하고자 하는 찬자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것이다. 성(性)은 금기에 대한 위반 혹은 한계의 부정을 위해 가장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각수록』은 금기를 넘어서 성을 그림으로써 사회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를 조롱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 후기의 패설집은 개인적 관심을 넘어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경향이 있으며, 불특정 다수의 독자를 향해 열려있다. 『각수록』은 중세에서 근대로 전환되는 사회적 혼란 속에서 성 담론을 통하여 사회 비판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조선 후기 성소화의 특징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패설집이라 할 수 있다.

끌개는 웃음을 유발하는 행위나 말을 뜻한다. 끌개는 본래 송고와 대립되

12) 김준형, 「『각수록』에 나타난 性과 그 의미」, 『국어문학』 40, 2005, 97쪽.

는 개념으로, 문학 속에서 주체가 객체보다 높은 위치에서 객체 즉 대상을 부정할 때 형성된다. 골계에는 객관적 골계와 주관적 골계가 있다. 전자는 대상 자체가 유발하는 것으로 대상의 외양과 성격 등에서 나오는 웃음이라면, 후자는 작가가 대상을 받아들이는 태도 및 표현에서 나오는 웃음이다. 해학과 풍자는 주관적 골계의 하위 범주이다. 이들을 설명하는 일반적 기준은 ‘태도’라고 할 수 있다. 해학과 풍자의 소재는 세상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해학이 대상에 대한 동정과 화해를 웃음으로 녹인다면, 풍자는 대상에 대한 날카로운 공격과 분노를 통해 경계를 남긴다.¹³⁾

필자는 골계미의 측면에서 『어면순』이 해학미를, 『각수록』이 풍자미를 보여주고 있다는 판단 하에 이를 구체적 작품 분석을 통하여 논증하려 한다. 해학이 인간의 약점에 대해서 동정적이며 침착한 태도의 소산이기에 해학의 웃음은 ‘동정적 쾌감’을 느끼게 하고 긴장을 이완시키지만, 풍자는 인간의 어리석음과 악덕을 폭로하고 공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 풍자의 웃음은 ‘비정한 쾌감’을 주는 것¹⁴⁾이라면, 『어면순』과 『각수록』은 각각 해학과 풍자적 미의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해학과 풍자는 배타적 개념이 아니며 해학 속에 풍자적 요소가, 풍자 속에 해학적 요소가 깃드는 경우가 많다. 다만 어느 편이 우세하냐에 따라 해학과 풍자를 언급하는 것이며, 골계미가 구현되는 구체적 양상은 다양할 수 있다. 『어면순』과 『각수록』에서 개별 소화의 인물형, 소재, 장면 연출, 시점과 서술 태도를 분석하면서 이러한 요소들이 어떻게 골계미의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지 밝히는 것이 본 논문의 연구 방법이자 목적이라 하겠다.

『어면순』과 『각수록』이라는 두 패설집을 통해 조선 전·후기 성소화의 골계미를 비교하여 결론짓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 경향성을 확인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더하여 『어면순』과 『각수록』의 성(性)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골계적 요소를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

13) 황병익, 「눈물 속의 웃음, 한국 해학의 전통」, 『우암사려』 11호,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1, 88쪽.

14) 김준오, 『한국 현대 장르 비평론』, 문학과 지성사, 1990, 261~262쪽.

는 작업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골계란 작자가 대상을 바라보는 인식의 방법이므로, 이를 살피는 작업은 『어면순』과 『각수록』의 찬자가 성(性)과 웃음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어떠한 문제의식을 던져주는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3. 『어면순』¹⁵⁾의 해학적 요소

『어면순』의 성소화는 해학적 웃음을 자아낸다. 이 웃음은 대상에 대한 폭로와 공격보다 동정적 쾌감과 긴장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어면순』의 해학적 요소를 인물형, 장면 연출, 시점과 서술 태도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1) 과장되고 희화화된 인물형

『어면순』의 성소화는 해학적 웃음에 기여하는 주된 요소로 과장되고 희화화된 인물형을 꼽을 수 있다. 『어면순』에서 그려지는 인물들은 발랄하고 의욕적이며 이들의 행동은 과장되고 우스꽝스럽다.

먼저 여성의 성적 적극성이 과장되게 드러난다. '밝히는 여성'의 이야기에서 쾌락의 주체로 보이는 여성은 사실상 남성에 의해 대상화된 여성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성의 과장된 성적 행동이 이야기의 전면에 부각되면서 희화화된 여성의 모습은 독자들의 웃음을 자아낸다.

한 촌에 사는 사내가 음식을 몹시 즐겨 제 아내와 그 일을 하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향락을 일삼았다. 어느 날의 일이었다. 남편은 아내의 수족을 묶고 일을 시작하여 운우가 끝나지 않았는데 별안간 화재가 일어나서 집을 태우려는 기세였다. 남편

15) 이 글에서 인용하는 『어면순』의 번역은 윤석산(1999)을 인용하였다. 이 번역본은 민속학자료간행회(1958)를 번역한 것이다. 이 글에서 인용하는 『어면순』의 원문은 민속학자료간행회(1958)를 따른다.

은 뜻밖의 사태에 당황하여 아내를 묶은 것을 풀어 놓을 겨를이 없어, 아내를 들어 올려 회나무 가지 사이에 올려 두었다. 마침 이웃에 있는 중 몇이 와서 화재를 구경하기에 남편은 중에게 도와줄 것을 애걸하였다. 불구경을 하던 중 한 사람이 손에 들고 있던 부채를 두려고 회나무 위를 쳐다보니 빈 구멍 하나가 있기에 무심코 부채 자루를 꽂게 되었다. 그곳은 곧 그녀의 옥문이었다. 때마침 산들바람이 부채를 흔들었다. 그녀는 감정이 고조되어, “바람아, 산들바람아, 이미 타 버린 집은 구할 길이 없으니 불어라. 끊임없이 불어나 나오.”하고 바람을 향해 빌었다.

-바람아 불어라, 淫波祝風¹⁶⁾

부채를 꽂아둔 곳이 하필이면 여성의 옥문이고 때마침 바람이 불어 여성의 성적 쾌락을 부채질하는 상황 설정이 희극적이다. 또한 화재로 집이 소실되어가는 와중에도 성적 감흥에 사로잡혀 ‘바람아, 끊임없이 불어나 나오’를 외치는 여성의 모습은 성에 탐닉하는 인간의 모습을 과장적이고 희화화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과장된 여성의 성욕은 여성에 대한 겁간을 화간으로 바꾸어주는 요소로까지 활용된다.

한 여인이 산간에 있는 감자밭에서 감자를 캐는데, 잠방이가 벗겨져 맨몸이 드러나게 되었는데도 그냥 구부리고 서서 감자만 캐고 있었다. 한 미친 녀석이 그 옥문이 조금 드러난 것을 보고는 몰래 다가와 급하게 옥경을 집어넣어 버렸다. 여인이 놀라 소리치기를, “도적이 나를 죽인다. 도적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하거늘 그 미친 녀석이 도망하지 않고 구부렀다가는 또 퍼며 운우가 한창 무르익으니, 그 여인이 견줄질을 하며 싫지 않은 소리로, “이 도적놈아 감자나 먹어라, 이 도적놈아 감자나 먹어라.”하더라.

-감자나 먹어라, 食薯客¹⁷⁾

16) 一村夫 性好淫事 奸厥婦無度 萬般試之 婦且成習而轉爲淫婆 一日 偶縛而私之 雲雨 未散 火忽連屋 村夫 蒼黃 未暇解縛 掉置于槐柯間 有隣寺數僧 來視火 村夫 乞救 僧 應之而要置其所揮團扇 仰視樹間則 有一孔空洞 故 乃插之 眞個淫婆玉門也 適微風 掀扇 扇柄烏竹促節 搖磨玉門 婆 酣甚 祝日風 乎風乎 已蕪之家 救無及也 吹之吹之 願無間斷也.

강간의 상황에서 “도적이 나를 죽인다.”라고 소리치던 여성은 행위 후 싫지 않은 소리로 “감자나 먹어라”라고 소리친다. 이를 읽는 독자들은 객관적 강간의 정황보다 여성의 태도 변화와 성적 만족감이라는 희극적 상황에 더욱 주목하게 된다. 이야기에서 여성의 적극적 성욕이 객관적 정황을 앞서 중요시되기 때문에 독자들은 이를 해학적 상황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겹간이 화간으로 대치되는 이야기로 「식서객(食薯客)」, 「경지이미(莖指異味)」 등이 있으며, 남성의 쾌락에 속아 성행위를 맺게 되었으나 나중에는 여성이 더욱 좋아한다는 유사한 유형의 이야기로 「과녀약치한(寡女藥癡漢)」, 「환장설전(歡場舌戰)」 등이 있다. 처음에 성행위를 거부하던 여성은 행위 후 극적으로 변하여 오히려 문란하게 성행위를 요구한다. 이 과장되고 극적인 변화에서 웃음이 유발된다.

기생이나 여종의 색을 탐하는 남편을 질투하는 부인의 이야기도 등장한다. 「처부욕존(妻不欲尊)」에서는 부부지도(夫婦之道)를 강조하며 기생과의 관계에 대해 변명을 늘어놓는 남편에게 사대부 부인이 “내가 언제 존경받고자 했습니까?”라고 반문한다. 이를 통하여 남편의 용렬함과 부인의 솔직함을 넘어선 적극적 욕망의 모습이 대비되며 해학성이 드러난다.

이처럼 과장되고 희화화된 여성의 성적 적극성은 『어면순』의 해학성을 드러내는 주된 요소이다. 여기서 범람하는 여성의 성욕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인지라는 질문은 『어면순』에서 해학의 진원지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다. 『어면순』에서 인간은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성적 욕망을 지닌 존재로 그려진다. 그러나 성적 쾌락의 표현에서는 남녀 간 심각한 불균형이 존재한다. 성적 쾌락을 표현하는 쪽은 대체로 여성이며 이들은 겹간과 같은 정황에서도 성적 쾌락을 느끼는 것으로 묘사된다. 반면 남성은 성적 행위를 주도하나 이들의 성적 쾌감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며 다만 행위 후에 성취가 뒤섞인 자부심이 표출될 뿐이다.

이를 통해 『어면순』에서 그려지는 여성의 성은 남성들의 웃음과 쾌락을

17) 一女掘薯山門 裸禪俯立, 有狂生 見其玉門 微露 秘跡而前 遂納玉莖 女驚駭呼曰 盜殺我 盜殺我 狂生 不捨 俯仰雲雨 酣暢 女流眴願語曰 盜乎食薯 盜乎食薯.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더불어 겹간의 대상에서 사대부가 여성이 제외되어 있다거나 남성 중에서도 사대부 남성들의 호색만이 온정적으로 그려지는 대목¹⁸⁾까지 종합해본다면, 『어면순』의 웃음은 남성 중에서도 특히 사대부 남성의 시각이 반영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과장된 행동으로 웃음을 자아내는 것은 여성만이 아니다. 『어면순』의 성소화에는 양반 역시 회화화의 대상으로 등장한다. 「마전복견(麻田伏犬)」, 「반반견(般般犬)」에서 여색을 밝히는 양반은 ‘개’로 회화화되고 있다.

한 선비가 계집종 이월이에게 음탕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 마음은 항상 간절하나 어떻게 해볼 기회가 없었다. 이에 선비가 스스로 생각하되, ‘지가 비록 쿡대가 세긴 하지만 만일 킁킁한 속으로 유인하면 순순히 말을 들겠지.’ 이렇게 밥 먹듯이 쉽게 생각해 놓고 어느 날 밤 캄캄한 틈을 타서 내실로 기어들어갔다. 여러 여종들이 한참 깊은 잠에 떨어져 자거든, 곧 이월이의 이불 속으로 스며드니, 이월이 놀란 김에 여장부다운 주먹으로 한 대 먹이는데, 그 주먹이 여인답지 않고 아프고 세어서 선비는 당황하였다. 더욱 늙은 부모들에게 들킬까 걱정이 되어 밖으로 뛰어나와 두 손을 땅에 짚고 엉금엉금 기어가는데, 마침 여종이 어린 아이의 뒤를 보이려고 사방을 돌아보던 중에 킁킁한 속에 네 발 가진 짐승이 기어가는지라, 개인지 알고는, “우리 워리!”하고 부르니, 선비 역시 개소리를 내면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개 모양은 개소리로, 般般犬¹⁹⁾

계집종 이월이의 주먹에 맞아 양반의 계획이 예상을 빗나가는 과정과 결국 위기를 무마하기 위해 엉금엉금 기며 개 흉내를 내는 희극적 장면에서 독자들은 해학성을 느끼게 된다. 「마전복견(麻田伏犬)」 역시 유사한 유형의

18) 『어면순』에서 사대부의 호색은 온정적 시선으로 그려지는 데 반해 무인과 승려의 호색은 비판적이고 차별적 시선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유해인, 『어면순 소재 성소화의 서사 논리와 그 의미』, 『어문논집』 86, 민족어문학회, 2019, 56~61쪽)

19) 一高生 嘗悅婢二月 挑之不得 心語曰彼雖強項 若誘於暗中 當無辭矣 一日 乘夜潛內室 羣婢 睡熟 直就二月衾內則二月 拳之甚苛 生 懼爲爺孃所覺 還出聽事而兩手 據地 寸步 適有一婢 放兒尿干庭除 回見則隱隱有四足之物 認是犬也 遽乎般般 生 作犬聲而走.

이야기지만, 아내가 여종과 합작하여 남편을 개로 취급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이렇듯 점잖아야 하는 양반이 성을 탐닉하기 위해 개가 되는 것도 불사한다. 양반이 희화화되고 우스운 대상으로 전락하는 이야기는 향촌의 이야기를 모았다고 하지만, 사대부적 시각이 투영된 『어면순』에서 다소 뜻밖일 수 있다. 그러나 인용된 「반반견(般般犬)」에서 알 수 있듯이 이때의 논조는 가볍고 희극적이다. 양반 계층의 부도덕을 비판하거나 반성하는 관점이 아닌,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무용담인 것이다.

『어면순』에는 백성들의 이야기도 다수 등장한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역시 과장되고 희화화된 행동으로 웃음을 유발한다. 「오자조부(五子嘲父)」, 「원일청금(元日聽禽)」, 「숙질문답(叔侄問答)」에서는 아이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어른을 능가하여 성(性)과 관련된 사태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이고 혼수까지 두는 모습으로 웃음을 유발한다. 이는 기존 사회질서가 일시적으로 뒤바뀌는 데에서 오는 반전과 악의가 개입되지 않은 공격에서 오는 웃음으로 해학의 미적 전략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속담에 정월 초하룻날 아침에 비둘기가 울면 콩이 잘 되고, 못 새가 울면 곡식이 풍성하고, 까마귀가 울면 과실이 잘 열린다 하였다. 어느 촌 지아버가 초하룻날 아침에 그 처와 거사코자 하였다. 그러나 처는 어린놈이 곁에 있음을 꺼리니 지아버가 어린놈에게 일러 가로되, “네 이 길로 나가서 새소리를 듣고 금년 농사를 점쳐 보아라.”하고 이르니 어린놈이 밖으로 나가 창틈으로 부부의 소행을 엿보니 부부가 지금 한창 어울려 돌아가며, 운우의 극치가 바야흐로 무르익어 가는데, 그 흐느끼는 소리가 크게 들리었다. 오래지 않아 일을 마치자 아이가 들어오는지라, 그 아버가 묻기를, “그래 밖에 나가서 무슨 새소리를 들었는고?”하고 캐니, “별로 새소리는 들은 바 없사옵고 다만 올해에 아이새끼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한즉 아버가 “무슨 까닭이나?”하고 물었는데 아이가 대답해 가로되, “아이 집(자궁)이 크게 급작스레 울었으니, 그렇지 않겠습니까?”하여 그 아버가 묵묵히 할 말을 잊었다.

- 정월 초하룻날의 새소리, 元日聽禽²⁰

2) 장면의 집약적 연출

「염상촉농(鹽商觸聲)」은 일종의 바보담이다. 어처구니없을 만큼 어리석은 인물들이 얽히고설켜어 우스꽝스러운 갈등이 빚어지는 이야기이다. 바보 같은 인물들이 성적인 상황을 둘러싸고 벌이는 해학적 갈등은 독자들에게 무장 해제된 웃음을 선사한다.

귀먹고 병든 사람이 길을 가다가, 해가 지고 길은 멀어 인가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다. 그때 또 한 사람의 건강하게 생긴 소금 장수가 그 자리에서 투숙을 하였다. 그래서 귀머거리와 한 자리에서 자게 되었으나, 소금 장수는 그가 귀머거리인 줄은 알지 못했다. 밤이 깊어지매 주인 부부가 거창하게 일을 시작하는데, 운우雲雨의 비명 소리에 잠이 깬 소금 장수는 재미가 나서 옆의 귀머거리를 쿡 찢러 깨웠다. 그러나 귀머거리의 귀에 그 운우의 환성이 들릴 리가 없었다. 그래서 귀머거리는 소금 장수가 우연히 찢러 깨운 줄만 생각하고 나무라지 않았다. 마침내 주인 부부의 합환소리도 끝나고 고요히 잠들어 있는데, 웬걸 주인 부부는 새벽녘에 또다시 일을 시작함에 소금 장수는 ‘이번에야말로 재미있는 광경을 옆의 나그네하고 함께 보리라.’하고는 또다시 귀머거리의 옆구리를 쿡 찢었다. 이에 귀머거리는 화가 나서, “이 늙은 놈아, 저녁에도 쿡쿡 찢르더니, 새벽에 또 쿡쿡 찢르구나!”하고 소리를 지르니, 주인이 자기들 부부의 일을 비방하여 기롱하는 말인 줄로 오인하고는, 큰 막대기를 가지고 쫓아오며 말하기를, “이놈아, 남의 부부간 일을 네가 무슨 연유로 참견하느냐?”하고 어지러이 후려치니, 귀머거리는 마침내 그 연고를 알지 못한 채, 하도 다급하여 행장까지 버리고 도망해 버렸다.

- 저녁에도 찢르고 또 찢르느냐, 鹽商觸聲²¹⁾

20) 俗以元日平朝 鳩鳴而豆盛 鳥鳴而穀實 鳥鳴而菓茂 有一村夫 於元曉 要娉婦 婦嫌兒子 在房 峻語曰爾盍往聽禽聲 以占今年事 兒子 辭出 匿窓間而覘所爲則夫婦 旋與講歡 雲雨聲 方壯 迨卒 兒子 適人 父 問有何聲 兒子 應曰別無禽鳥聲 但今歲 兒輩 必盛 父曰何也 對曰兒之家俄大鳴矣 父 默然.

21) 一病聾者 道值日暮 假宿人家 俄又一鹽商 投宿矣 與聾 共床而臥 未知其聾也 夜既深 主夫婦 講歡 鹽商 聽雲雨聲 肘聾者而令聽之 聾者 以謂偶肘 不之詰 亭曉 主夫婦 又講歡 鹽商 更肘之 聾者 大怒 疾聲罵曰老狗者 昏既觸之 曉更觸耶 主家 誤認詆己 持大棒逐之曰 夫婦問事 非汝客 所得知 亂擊不已 聾者 竟不知其何故 棄其行具而挺身走去.

하룻밤 묵어가는 나그네가 주인 내외의 정사 소리를 엿듣는 상황과 오해가 거듭되면서 확대되는 이야기의 과정도 흥미롭지만, 이 과정이 우스꽝스러운 하나의 장면으로 집약되는 연출이 해학미를 더한다. 화가 난 주인이 내리치는 막대기에 다급해진 귀머거리가 행장까지 버리고 허둥지둥 도망치는 마지막 장면은 그간의 오해가 거듭되던 사건을 집약하여 보여줌으로써 독자들의 실소를 자아낸다. 이렇듯 인물들의 행동이 하나의 희극적 장면으로 집약되는 방법은 『어면순』의 성소화에서 종종 보인다.

어느 시골집 종놈이 그 마누라와 더불어 얼마 되지도 않는 밭을 갈러 다니는데, 형편도 없이 사뭇 여러 날이 걸리거늘, 주인 늙은이가 이를 이상히 여겨 하루는 일부러 뒤를 쫓아가서 보니, 밭 가운데로 큰 나무가 있고 그 나무 밑은 제법 널찍한데, 그 널찍한 부분에 사람이 밟고 다닌 발자취가 낭자하게 남아 보였다. 주인 영감은 이튿날 새벽에 먼저 밭으로 나가서, 그 큰 나무 위에 올라가서는 가지가 뻗뻗한 가운데 숨어 있었다. 얼마 후에 여종과 남종이 함께 밭으로 오더니, 나무 밑으로 걸어와서는 각각 옷을 흘랑 벗고 밭을 갈기 겨우 반식경도 채 되지 않았는데, 계집이 먼저 지아비를 불러 가로되 “우리 이제 그것을 해야지요?” 하니, “그래, 그래, 그래야지.” 하며 사내가 응수하였다. 이에 여종이 엎드리면서 뒷발을 높이 들고 암놈의 말 형상을 지으니, 남종이 두 팔로 땅을 짚으며 달리는 말의 형상으로 여자의 옥문에 코를 대고 뉘새를 맡으며, 말 울음소리를 내며, 거기에 입을 맞추고 야단법석을 하였다. 그러다가 종놈이 문득 큰 나무 위를 바라보니 주인 늙은이가 있는 지라, 종놈이 깜짝 놀라 황급히 달아나는데, 까닭을 알지 못하는 여종은 말처럼 “응후후후 응후후후……”하고 울부짖으며, “빨리 일을 치르지 않고 어딜 가요?”하고 고함을 지르니 종놈이 “응흥흥흥 응흥흥흥…… 나무 위를 보아라…….”하고 연방 말 울음소리를 냈다.

- 그저 말 울음소리만 내면서, 村奴馬戲²²⁾

22) 村家有奴 偕妻往耘 數頃田 積日持久 主翁怪之 一日往視 田中大樹下數席許 足踏去莠未半 翁於明曉 先上樹 屏于蒙密中 覘其所爲 奴與妻至樹下 各赤身就耘 纔半餉 女呼夫曰 “作戲若何” 夫曰 “諾” 女俯立踞足 作牝馬態 夫兩手據地馳 似牡馬就嗅玉門 作牡馬笑回顧反脣 適見樹上主翁蹲坐 奴惶駭而走 女不知所以 踞作馬聲曰 “陰用那裡去” 奴又作馬聲曰 “陰用見樹上” 陰用方言馬戲聲.

「촌노마희(村奴馬戲)」는 이야기의 리듬이 완만하게 시작하여 점차 속도가 붙다가 마지막 장면에 이르러 정점을 찍는다. 노비의 태만을 관찰하고 추적하는 주인 늙은이의 주도면밀함에서 시작한 이야기는 노비 부부의 정사가 시작되며 흥미가 고조되다가 남편이 나무 위의 주인을 발견하면서 극적으로 변한다. 끝내 눈치채지 못한 부인이 성적 감흥에 연신 말 울음소리를 내고 이에 남편이 “응흥흥흥. 나무 위를 보아라…….”하며 도망기는 마지막 대목은 이야기를 하나의 희극적 장면으로 집약하며 해학성을 더해준다. 관음증적 시선을 지닌 주인 영감과 성적 즐거움에 빠진 노비 부부의 모습이 교차하는 와중에 강렬한 말 울음소리로 독자들에게 웃음을 주는 희극적 장면이 완성된 것이다.

이밖에 「반반견(般般犬)」과 「부부적도(負釜跡盜)」에서도 해학적 장면 연출을 살펴볼 수 있다. 「반반견(般般犬)」에서 양반이 여종을 탐하기 위해 나름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우지만 일이 틀어지면서 결국 개소리를 내며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마지막 대목은 희극적 장면으로 이야기가 집약되어 해학미를 더하고 있다. 「부부적도(負釜跡盜)」는 인물들의 성적 욕망으로 인하여 서로 속고 속이는 거짓이 되풀이되며 갈등이 확대되는 이야기이다. 마지막에 허무맹랑한 아내의 거짓말에 속아 아내와 함께 술을 깊어지고 행상인을 뒤쫓는 남편의 모습은 성에 탐닉하는 인물들의 욕망이 현실적 상황에 부딪히며 좌초되는 결말을 우스꽝스러운 하나의 장면으로 드러내어 해학미를 느끼게 해준다.

『어면순』의 다양한 인간 군상은 인간 본연의 욕망에 충실하고 이들의 행동은 다소 어리석을지언정 발랄한 생동감을 전해준다. 과장되고 실없는 이들의 행동은 하나의 장면으로 집약되어 해학미를 더해주고 있다.

3) 전지적 작가 시점과 희화화된 서술 태도

『어면순』의 인물들은 말과 행위를 통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분출한다. 인간적 욕망을 한 치의 망설임 없이 표출하는 솔직하고 발랄한 모습에 독자들

은 공감의 웃음을 짓게 된다. 『어면순』은 서술자가 독자들에게 작중인물과 상황을 설명하는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독자는 서술자의 목소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 『어면순』에서 인물과 상황의 회화화와 이로 인한 해학은 서술자의 목소리라고 볼 수 있다.

화재의 와중에도 쾌락에 겨워서 바람이 불기를 기원하는 여성(「음파축풍(淫波祝風)」)이나 강간의 상황에서 운우가 무르익자 싫지 않은 목소리로 “감자나 먹어라.”라고 외치는 여성(「식서객(食薯客)」)은 서술자에 의해 회화화된 인물이다. 여종을 범하려다 결국 개소리를 내며 위기를 무마하는 양반(「반반견(般般犬)」), 말 흥내를 내며 정사를 벌이는 노비 부부(「촌노마희(村奴馬戲)」), ‘뼈를 녹이는’ 정사에 미혹되어 남편을 속이고 외간 남자를 따라나서다 낭패를 보는 아낙네(「부부적도(負釜跡盜)」) 등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회화화는 계층과 성별을 가리지 않고 일관되게 드러난다.

이러한 인물과 상황의 회화화에 더하여 이야기의 마지막에 공감적 웃음을 덧붙이는 서술 방식을 눈여겨 볼 수 있다.

내금군(內禁軍)으로서 궁중에 근무하는 유(柳)라는 자가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조회에 참석하러 갔다가 동료에게 이르기를 “조회의 참석이 잦으면 가세가 장차 가난해질 것이 걱정이야.”한다. 동료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다. 유는 “며칠 전에 닭이 첫 회를 울리자 조회하러 일어났을 때, 아내가 날씨가 차갑다 하여 술을 사서 권하기에 두어 사발을 들이키고는 대궐로 들어가는 도중에 조정이 임시 휴회임을 듣고 돌아오니, 바깥이 오히려 밝지 않았는데, 아내가 이불을 두른 채 누웠기에 의관을 벗어 버리고 취한 여흥을 빌어 일을 행하였더니, 그 뒤부터는 조회가 있을 때마다 반드시 술을 사서 마시게 하니, 나 같은 박봉으로 이렇게 된다면, 돈이 부족해서 못 배길 것이 아닌가.”하고는 말을 늘어놓았다. 동료는 배꼽을 움켜잡고 크게 웃었다.

- 조회와 아침 술, 朝參沽酒²³⁾

23) 內禁 性柳者 嘗詣朝參語友曰 朝參 數 弊居 將貧 友曰 何耶 柳曰 頃者 雞初鳴 趨朝 室人 涸天寒 沽酒飲我 我吸數碗 계闕道而 聞權停卽還則 天尙赤明 室人 擁衾臥 旋脫衣帶 乘酣歡洽 由是 若值趨

내금군인 유(柳)는 동료에게 아내와의 성행위를 무용담처럼 자랑한다. 유(柳)의 과장 섞인 너스레는 여성을 성적으로 만족시켰다는 데에서 오는 남성으로서의 성취감이 뒤섞인 쾌락에서 연유한다. 여기에 이야기의 마지막에 ‘동료는 배꼽을 움켜잡고 크게 웃었다’라는 공감적 웃음이 덧붙여져 향유자인 사대부 남성들의 공모 의식을 환기한다. 「의관자제(衣冠子弟)」역시 결말에서 유사한 서술 방식이 보인다. 어느 양반이 술에 취해 옷도 제대로 벗지 못하고 침선비인 분금이를 범하는 모습을 보며 한 친구가 “아이가 태어나면 의관자제는 될 것”이라고 농담을 하자 이에 ‘함께 앉아 있던 친구들이 모두 포복절도를 하였다’라고 끝맺고 있다.

나이가 『어면순』의 성소화는 사대부 남성뿐 아니라 대중의 공감적 웃음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내금신장(內禁身長)」에서 한 양반이 여종의 방으로 가는 도중 아내에게 들키자 내금위에 응시하고자 신장을 재어보려 한 것이라고 변명하며, “당신은 내가 출세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고 아내와 실랑이를 벌이는 내용으로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가 배꼽을 쥐며 웃었다’라고 마무리되고 있다. 「합마쟁송(合馬爭訟)」에서는 암말과 수간(獸姦)하는 이웃 사람을 본 한 백성이 입조심을 하는 대가로 쌀 세 가마를 받고도 소문을 퍼뜨리자 화가 난 이웃이 소장을 내게 되는데, 사또가 두 사람 모두 잡아들여 장 팔십 대를 쳤다는 이야기로, ‘듣는 사람 모두가 시원해하더라’라고 이야기를 끝맺고 있다.

이렇듯 공감적 웃음으로 결말을 짓는 서술 방식은 인물의 희화화와 더불어 독자가 성소화의 웃음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서술자의 서술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인물의 성욕으로 인한 모순적 태도나 어리석음에 대해서도 온정적 태도의 웃음을 보여줌으로써 조화로움을 드러내는 해학적 서술 방식인 것이다. 혹은 「합마쟁송(合馬爭訟)」의 경우에서처럼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성(性)적 기준에 대한 합의를 확인하는 서술로 기능하고 있다.

『어면순』 상권 20편에는 논평이 실려 있어 찬자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오자조부(五子嘲父)」와 「여약힐한(女藥黠漢)」의 논평을 살펴보자.²⁴⁾

사신은 말한다.

“사랑하되 엄히 하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는 도리이고, 사랑하되 공경하는 것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도리이다. 엄하지 않은 것은 개가 사랑하는 것과 같고, 공경하지 않는 것은 금수가 사랑하는 것이다. 다섯 아들이 아버지를 조롱한 것을 보면, 아버지가 먼저 자식 사랑하는 도리를 잃어버렸음을 알 수 있도다. 그러나 자식된 도리는 아버지가 엄하지 않다고 하여 공경하지 않는 것은 안된다. 다섯 가지의 형벌에 속하는 것이 3천 가지 죄인데, 그중에서도 불효가 가장 큰 죄이다. 다섯 아들의 죄를 다섯 가지의 형벌에 준한다면 사형을 내려고 오히려 남은 죄가 있을 것이다.

- 자식 많은 부부의 방사, 五子嘲父²⁵⁾

「오자조부(五子嘲父)」는 아들을 다섯 둔 가난한 부부의 이야기로 아들들은 동생이 태어나면 안 된다며 부모가 합환하지 못하도록 순서를 돌아가며 불침번을 선다. 다섯째가 깜빡 조는 사이 부모가 급하게 관계하려 하지만 아들이 깨어나 소리를 지르는 통에 이마저도 실패한다. 결국 부모는 낮에 다섯 아들을 내보내고 운우의 정을 다하려 희롱을 하는데, 이를 엿듣던 다섯 아들이 돌아와 부모가 하던 희롱의 말로써 부모를 놀린다. 찬지는 논평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다섯 아들의 죄는 사형에 처해도 부족하다고 꾸짖는다.

“선유(先儒)가 이르기를, 아주 간사한 이는 충성스러운 것 같고, 사기를 썩 잘 치는 사람은 신실한 듯하다 하였는데, 이 치환을 두고 이른 말이다. 그러나 과부가 치환의 엉덩이를 치며 교함을 즐겼던 것을 보면, 처음에 시험 삼아 옥문을 아느냐

24) 논평은 윤석산(1999)에 번역되어 있지 않아 시귀선 외(1998)을 인용하였다.

25) 史曰 愛而嚴 愛子之道 愛而敬 愛父之道 不嚴犬愛之也 不敬獸愛之也 觀五子嘲父 父之先失愛子之道可知 然爲子之道 不可以父不嚴而不敬也 五刑之屬三千不孝爲大 而五子罪準五刑 死尙餘辜矣.

고 물어봤던 것도 금수와 같은 욕망이 이미 익을 대로 익어 그 같은 질문을 함으로써 당시 곁에 있던 자들의 의심을 면해보려 했는지 어찌 알겠는가? 이 두 사람의 죄는 모두 용서할 수 없도다.”

- 과부와 엉큼한 며슴, 女葯點漢²⁶⁾

『여약힐한(女葯點漢)』은 시골 과부와 며슴의 정사 이야기다. 과부는 뽕잎을 따러 가고 싶었지만, 며슴이 난잡한 짓을 할까 걱정이 되어 옥문이 무엇이나고 물어본다. 며슴은 짐짓 모른 척을 하고, 이에 안심한 과부는 며슴을 데리고 산에 들어간다. 며슴의 계략에 속아 관계를 맺게 되는 과정에서 결국 정욕이 타오른 과부는 며슴의 엉덩이를 때리며 정사에 빠져든다. 찬자는 논평에서 과부와 며슴 모두 금수와 같은 욕망을 지닌 자들로서 이들의 죄는 용서할 수 없다고 힐난한다.

발랄하고 맹랑한 『어면순』의 이야기와 달리 찬자의 논평은 유교적 관점에서 매우 엄격하고 당위적이다. 기생에 빠진 양반의 주색을 경계하고, 부모의 성적 교합을 놀리는 자식의 불효를 꾸짖고, 욕정에 빠진 남녀의 죄는 용서될 수 없다고 일갈한다. 그렇다면 찬자는 왜 이런 실없고 어리석으며 성에 탐닉하는 인간 군상의 이야기들을 수집하여 썼을까.

이는 텍스트 분석만으로 단정짓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만 『어면순』의 성소화에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한 인간 군상의 성적 욕망이 묘사되어 있으며 이들의 행동이 어리석고 실없을지언정 온정적 태도로 묘사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선행 연구에서는 송세립의 전기적 사실과 연관 지어 문제의 실마리를 찾고자 했다. 재지사족으로 비교적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했던 점, 향촌에 들어가 민중들의 삶과 긍정적인 성 인식을 접하며 성(性)을 인간의 기본적 욕망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된 점 등을 가능한 요인으로 추론하고 있다. 시각을 달리하면 개인적 분율함을 일탈의 표현인 성(性)으로 달래려 했다는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26) 史臣曰 先儒云大奸似忠 大作若信 癡漢之謂矣 然則觀寡女擊臂講歡 安知初之試問玉門也 已稔禽犢之欲 而故以此問 欲免當時在傍者之疑也 二者之罪 俱不可赦也.

그러나 여성의 성욕을 활용하는 방식에서 보이는 남성 중심적 시각, 무인과 승려에 대한 차별적 시각, 사대부들의 공모 의식이 환기되는 이야기, 사대부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찬자의 논평 등을 폭넓게 살펴본다면 『어면순』의 성소화는 기본적으로 사대부의 계층의식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현대의 시각에서 보이는 성, 계층 차별적 요소는 당대적 사회 감정에서는 충분히 용인이 가능한 수준이었기에 조화로운 해학의 웃음으로 그려질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계층의식을 떠나 성(性)을 인간의 기본적 욕망으로 인정하고, 다양한 계층의 구비적 이야기를 해학의 태도로 서술한 점은 사대부로서의 명분과 당대적 가치관의 한계에서 진일보한 점으로 볼 수 있다. 『어면순』의 성소화가 보여주는 웃음에 드러나는 동정적 쾌감은 인간이라면 보편적으로 지니는 성적 욕망을 긍정하고 이로 인한 모순과 어리석음까지 웃음으로 감싸고자 한 찬자의 태도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이는 과장되고 희화화된 인물형, 장면의 집약적 연출, 전지적 작가 시점과 희화화된 서술 태도, 공감적 웃음으로 결말을 짓는 서술 방식 등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4. 『각수록』²⁷⁾의 풍자적 요소

『각수록』의 성소화를 통해 느낄 수 있는 웃음의 정조는 『어면순』과 사뭇 다르다. 풍자가 날카로운 공격성을 바탕으로 인간의 어리석음과 악덕을 폭로하여 비정한 쾌감을 전해주는 웃음의 방식이라면, 『각수록』의 성소화는 이에 부합하는 요소를 지니고 있다. 『갈수록』의 풍자적 요소를 인물형, 소재, 시점과 서술 태도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27) 이 글에서 인용된 『각수록』의 원문과 번역은 김준형(2010)을 따른다.

1) 비인간적 인물형

『각수록』의 성소화 속 인물들은 대부분 사회적, 윤리적 기준에서 크게 일탈해 있다. 하지만 이들의 행동은 매우 침착하고 태연하다. 따라서 인물들은 내면이 감추어지고 일상적인 인물 유형과는 다른 이질감을 전해준다.

화산거사(花山居士)가 유람차 강원도에 갔을 때다. 날은 저물고 길은 멀어 방황하다가 겨우 인가를 발견하여 들어갔다. 들어가 보니 남주인 엽(獵)은 총을 메고 나가고, 여주인 침(針)만이 무료히 앉아 있었다. 거사가 그 여인에게 가서 왼손으로는 그녀의 젓가슴을 움켜잡고, 오른손으로는 그녀의 등을 어루만졌다. 그랬더니 “이 무슨 짓이오! 이 무슨 짓이오!”하는 소리도 점점 끊어지더라.

이것은 맹자의 호연지기(浩然之氣)로 공자의 관일지도(貫一之道)를 행한 것으로, 너도 또한 그 즐거움을 누리고, 나도 또한 그 즐거움을 누리 두 사람이 모두 즐거웠으니 곁에 있는 사람들이야 무슨 상관이리오?

- 화산거사전, 花山居士傳²⁸⁾

「화산거사전(花山居士傳)」은 강간 이야기다. 강간 이야기는 『어면순』에도 있지만 인물의 행동 방식은 대조적이다. 『어면순』이었다면, 여성은 처음에 남성을 거부하다가 성행위가 진행되면서 쾌락을 느끼는 모습으로 돌변하여 독자들의 웃음을 자아냈을 것이다. 하지만 「화산거사전(花山居士傳)」에서는 “이 무슨 짓이오! 이 무슨 짓이오!”하는 소리도 점점 끊어지더라. 라고 간결하게 정황만 서술된다. 이처럼 『각수록』에서는 인물의 과장적 모습이 사라지고, 인물과 사건에 대한 묘사가 간결하고 객관적이다.

또한 화산거사는 『어면순』에 자주 보이는, 성(性)에만 몰두하기에 어리석으나 인간적 한계로 인해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인간 유형이 아니다. 화산

28) 花山居士, 以遊覽次, 入于江原道, 日暮途遠, 望門投入, 雄主人獵者, 擔銃而去, 雌主人針者, 無聊而坐. 居士近之, 左手執其乳, 右手撫其背, 是何是何之聲, 漸漸斷也. 乃以孟子浩然之氣, 行夫子貫日之道, 爾亦樂其樂, 我亦樂其樂, 兩人相樂, 傍人何關.

거사는 본인의 강간을 맹자의 호연지기요, 공자의 관일지도라고 강변하고 있다.²⁹⁾ 즉 화산거사는 본인의 비도덕적 행위를 유교의 가르침에 빗대어 옹호하는 것이다. 이는 단지 성적 욕망에 빠진 인간의 어리석음이나 모순 정도로만 치부하기 어려울 것이다. 『어면순』에서는 비슷한 행위를 하더라도 이는 단지 성행위에 빠진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고 상대방 역시 성적 욕망을 지닌 인간이기에 한바탕 웃을 수 있었지만, 『각수록』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이다. 인물은 일탈을 개의치 않거나 옹호까지 하는 모습으로 사회적으로 합의된 일상적 감정을 벗어난 듯한 이질감을 보여준다.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살펴보겠지만, 『각수록』에는 비인간적 인물형이 종종 보인다. 「부이접형(附耳接型)」을 살펴보자.

(전략) 처녀가 갓바치의 집에 왔다가 그 기술을 보고 부러워하며 물었다.

“추악한 가죽신도 규격화된 틀에 맞추고 나면 변하여 저렇게 고운 신발이 되네요. 그런데 어째서 추악한 얼굴을 고치는 틀은 없나요?” “있지. 모양은 송이버섯과 같은데, 여자에게 한번 붙이면 추악한 모습도 아름다운 용모로 변하거든. 너도 시험해볼래?” “그게 어디 있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지.”

그러고는 그의 양물을 꺼내 보여주었다. 그러자 처녀가 말했다. “그렇다면 한번 시험해볼래요.”

이에 갓바치는 처녀를 돌아눕게 하고는 간음하였다. 그리고 나서 처녀에게 말했다. “내일 아침이 되기도 전에 얼굴이 고와질 게다.”

처녀는 집으로 돌아왔다. 처녀는 다음 날 아침 내내 거울을 마주하여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괴이하여 이유를 물었다. 처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어제 갓바치 아저씨가 나를 규격화된 틀에 맞추고는 ‘내일 아침이 되기도 전에 얼굴이 고와질 게다’라고 말했거든요. 얼마나 고와졌나 보려고 한참 동안이나 거울을 마주하고 앉아 있었지만 옛 모습에서 조금도 변하지 않으니 참으로 이상하네요.”

29) 이는 성행위를 상징하는 언어유희로 볼 수 있다. 유교적 가르침에 대한 패러디를 통하여 웃음을 유발하는 것이다. 이는 지적 태도가 바탕이 된 풍자로 대상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전제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소화의 맥락에서만 보아도 이러한 언어유희가 남기는 웃음이 여주인 침과 화산거사 쌍방을 유쾌하게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버지는 더욱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게 무슨 말이나?”

그러자 처녀는 자신의 음문을 가리키며 대답했다. “갓바치 아저씨가 송이버섯처럼 생긴 물건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다가 맞췄다니까요!”

아버지는 크게 화를 내며 말했다. “추악한 놈이 내 딸을 더럽혔구나. 내 반드시 그놈의 처를 간음하고 말리라.”

(중략) 처녀의 아버지는 갓바치의 아내에게 말했다. “자녀가 임신했다는 말은 들었네. 그런데 그 아이에게는 귀가 붙어 있지 않기에 귀를 붙여주러 특별히 내가 왔네.” (중략)

“귀가 없는 자식을 낳느니 차라리 두 번째 지아비를 두어 온전한 아이를 낳는 것이 낫지요.”

마침내 갓바치의 부인이 돌아누웠다. 처녀의 아버지는 그녀를 간음하고 돌아왔다.

갓바치가 돌아오자, 그의 부인은 지난 사연을 말했다. 그러자 갓바치는 화를 내며 몽둥이를 집어 들고 달려와서는 처녀의 아버지를 꾸짖었다. “네가 감히 귀를 붙인다는 말로 남의 아내를 간음하니, 이 무슨 짓이나?”

처녀의 아버지도 화를 내며 말했다. “네가 감히 규격화된 틀에 맞춰야 한다는 말로 내 딸을 더럽혔으니, 그것은 무슨 짓이나?” 그러자 갓바치는 웃으며 말했다. “두 사람 모두 과실이 있으니 차라리 용서하는 것만 못하겠소.” 그러면서 갓바치는 돌아갔다.

- 귀를 붙이고, 규범화된 틀에 맞추다, 附耳接型³⁰⁾

이야기에서 벌어지는 사건의 반인륜성에 반해 인물들의 행동은 태연하거

30) (전략) 隣有一處女, 年及笄, 而滿面痘花, 貌極醜耳. 適來見而羨曰: “醜鞋接於範型, 則化為美鞋, 無改醜面之範型乎?” 皮匠曰: “有之. 狀如松蘿而長, 一接於女, 則醜貌化為美容. 爾其試之?” 處女曰: “安在?” 皮匠曰: “吾方待之.” 因示其陽物, 處女曰: “然則願試之.” 皮匠使翻臥而淫之曰: “不踰明朝, 而貌自美矣.” 處女還家, 翌日終朝, 對鏡而坐. 父怪而問之, 女曰: “昨日皮匠叔, 接我範型曰, ‘不踰明朝, 而貌自美矣.’ 吾欲觀其美, 對鏡而坐者, 移時而不變舊容, 怪矣.” 父益怪之曰, “何言也?” 處女指陰門而對曰: “皮匠叔持如松蘿之物, 接我於此耳.” 父大怒曰: “鄙夫污我女, 吾必淫其妻.” (중략) 因謂其妻曰: “聞子懷胎, 而知其不付耳. 故為其付耳, 而特來耳.” (중략) 妻妻曰: “如其生無耳之子, 不如畜後夫, 而生具體之子.” 遂翻臥, 其人淫之而還, 及皮匠歸, 其妻說其故. 皮匠發怒, 携杖而走, 詰之曰: “爾敢以付耳之說, 淫人之妻, 何也?” 其人亦怒曰: “爾敢以接型之說, 污我之女, 何也?” 皮匠笑曰: “兩相有過, 不如怒之.” 遂還.

나 냉정하다. 처녀는 아무리 성 경험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도 갓바치의 행위에 대해 아무런 판단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서술되고, 임신까지 한 갓바치의 부인 역시 자신을 속이는 남성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로 간음을 하고 이 사실을 남편에게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에 반해 남성들은 계락을 써서 서로 속이는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비도덕적 행위에 어떠한 죄책감이나 고뇌도 보이지 않는다.

「부이접형(附耳接型)」과 거의 유사한 화소를 지닌 이야기로 「습사부족(習事付足)」을 들 수 있다. 다만 성을 매개로 속이고 피해를 주는 대상이 이웃이 아닌 친족이라는 점에서 한층 반인륜적이다. 형부가 결혼을 앞둔 처제에게 첫날밤을 보내려면 연습이 필요하다고 속여서 간음하고, 이를 안 제부가 임신 중인 처형에게 아이의 팔과 다리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으니 자신이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간음한다는 내용이다. 충격적일 만큼 반인륜적인 이야기지만 결말은 몹시 화해롭다. 서로 화를 내던 두 사람은 ‘크게 웃으며 “피차 같은 것이다”하며 처음처럼 서로 좋게 지냈다’라고 갈등을 끝맺는다.

두 이야기에서 여성들은 무지해서 판단력이 없고, 어떠한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인형 같은 존재로 그려진다. 반면 남성들은 남을 속이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서슴없이 할 만큼 욕심이 많고 무자비하다. 여성이나 남성 모두 내면을 느낄 수 없는 공허한 존재로 그려지는 것이다. 심각한 갈등이 예상되는 이야기의 결말에서 보이는 갑작스러운 웃음과 화해는 조화로움을 벗어나 있다. 이렇듯 비인간적인 인물형에 독자의 공감적 이해는 쉽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이야기의 결말에서 보이는 웃음은 비정한 쾌감을 전해주게 된다.

「후공소과(後孔小科)」에도 일반적인 성 윤리에서 이탈한 인물들이 등장한다. 한 선비가 과거를 보러 한양에 가다가 점쟁이에게 아무개 부인과 간음하면 과거에 급제할 것이라는 예언을 듣는다. 아무개 부인을 찾아간 선비는 여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간통하는데, 여인은 앞은 남편의 것이기에 뒤만 허락하겠다고 한다. 선비는 부인의 말을 따른다. 이후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부인은 사연을 있는 그대로 전한다.

(전략) 집주인은 몹시 한탄하며 말했다.

“과거 보는 선비는 보통 사람처럼 대접할 수 없소. 그가 만약 대과에 오른다면 우리가 얻는 것 또한 반드시 많지 않겠소? 그의 성품을 어긋나게 하지 말고 그의 바람대로 따릅시다. 내가 쫓아가서 그를 데려올 것이니, 당신은 인색하게 굴지 말고 앞구멍을 허락해주구려.”

집주인이 문을 나서서 멀리 바라보니, 영남 선비는 이미 남태령을 지나고 있었다.

“바라건대 나그네는 잠시 멈추시오!”

영남 선비는 집주인이 쫓아오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랐다.

‘내가 제 아내를 간음했으니 화가 나서 쫓아오는 것이 분명하리라.’

그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급히 달아났다. 그러자 집주인은 혼자 말했다.

“저놈이 저렇게 경망한데 어찌 대과에 합격할 것을 기대하리오? 운이 좋으면 소과에나 붙겠구먼.”

영남 선비는 과연 소과에만 합격하였다.

- 뒷구멍은 소과, 後孔小科³¹⁾

남편이 자신과 나그네 사이를 의심하거나 자초지종을 물은 것이 아님에도 나그네와 간통한 이야기를 앞과 뒤를 들어가며 소상히 설명하는 부인도 심상치 않거니와 나그네가 대과에 합격하면 얻을 것이 많으니 인색하게 굴지 말고 앞을 허락하라는 남편은 일반적 사회 기준에서 일탈해 있다. 아내를 간음당한 남편이 화나 있을 거라는 나그네의 우려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지극히 타당하지만, 남편은 이를 치졸하고 경망한 것으로 폄하하고 있다. 즉 아내와 남편, 나그네 모두는 비도덕적 모습을 보이는데, 특히 남편은 반사회적이기까지 하다. 사회적 기준을 일탈하는 행위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에 ‘소과에나 붙겠다’는 농담은 사회적 질서에 대한 조소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또한 ‘앞구멍은 주인이 있으니 허락할 수 없고, 뒷구멍은

31) (전략) 店主甚恨曰：“科儒不可以凡人待之。若登大科，吾輩所得，必多矣。不如勿拂其性，從其所聽。吾將追而領來矣，子不吝前孔而許之。”仍出門而望之，舉子已上南泰嶺矣。呼曰：“願客子暫駐！”舉子見店主追之，大驚曰：“吾淫其妻，彼必怒而追者也。”遂不顧而急走。店主曰：“彼者若是其輕妄，安敢望大科乎？得好運，可以占小科矣。”其人果捷小科。

주인이 없으니 허락한다'는 부인의 말은 자신의 행위를 윤리적인 양 해명하고 있으나 이치에 닿지 않는 말로써, 성도덕에 대한 무지를 가장한 사회질서에 대한 조롱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무지한 여성과 음흉한 남성은 『각수록』의 성소화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형인데, 행위의 의도나 동기가 드러나지 않고 독자의 공감을 어렵게 할 만큼 정상적 윤리 기준을 넘어서고 있기에 비인간적 인물형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각수록』의 비인간적 인물형은 규범에 대한 위반의 감정을 보여주려는 찬자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보인다. 금기에 대한 위반은 사회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부정과 저항이며 동시에 닫힌 현실의 질서를 벗어나고자 하는 바람일 수 있다.

2) 양반 풍자 소재

양반을 희화화할지언정 사대부간 공모 의식이 엿보이던 『어면순』과 달리 『각수록』에는 양반을 본격적으로 풍자하고 조롱하는 이야기가 꽤 있다. 양민 남성이 양반에게 학질을 치료해 준다면 비역하는 「기간치학(嬰奸治瘡)」이나 양반층을 조롱하는 이야기로 해석되는 「역와시유(易瓦示諭)」, 「보지자지(寶之刺之)」, 「현풍밀양(玄風密陽)」, 「반남무안(潘南務安)」, 「서사복첩(筮仕卜妾)」, 관가의 수탈을 비판하는 「피쉬결망건(避倅結網巾)」 등이 그것이다.

서른 살이 넘었지만 아직 결혼하지 못한 추녀가 있었다. 추녀는 만날 햇빛을 받으면서 광주리를 끼고 교외로 나갔다. 그러고는 얼굴까지 치마를 뒤집어쓰고 음문을 드러낸 채 누웠다. 지나가는 사람이 마음껏 자신을 간음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반나절이 지나도록 돌아보는 사람조차 없었다.

해가 서쪽으로 점점 기울어갈 무렵이었다. 꼬불꼬불하고 엉클어진 수염을 가진 더벅머리 노총각이 지나가다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며 말했다. “내 나이 서른이 넘도록 아직 음문의 맛을 보지 못했는데…… 이는 하늘이 내려주시는 은혜로다.” 그러고는 달려들어 추녀를 간음하고 몸을 돌려 달아나버렸다. 추녀는 그를 붙잡아 함께

살려고 쫓아갔지만 잡을 수가 없었다.

추녀는 이로 인해 임신을 하게 되었고, 쌍둥이도 낳았다. 그러나 아버지의 성을 알 수가 없었다. 추녀는 결국 관아에 가서 ‘성을 내려주십사’ 애걸하였다. “침이 어느 밭에서 한 장부를 만나 서로 교합하였습니다. 그러나 장부는 자신의 성도 말해주지 않고 달아나버렸습니다. 이런 까닭에 자식은 낳았지만 성을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라옵건대 사또께서는 제 자식들에게 성을 내려주십시오.”

태수가 아전에게 그 밭을 살펴보게 하니, 밭에 부여된 세금이 열여덟 복(卜)이었다. 이에 사또가 말했다. “열여덟 복(十八卜)을 합하면 박(朴)자가 되니 성은 박씨로 하는 것이 옳겠구나. 성을 정했으니, 부득이 본향도 내려주어야겠구나.” 그리고는 추녀에게 물었다. “네가 그 장부와 교합할 때의 정경이 어떠했느냐?” “처음에는 음문이 발딱발딱[우리말에 스스로 솟구치는 것을 발딱발딱(潘南潘南)이라 한다]하더니 나중에는 무안[우리말에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는 것을 무안(務安)이라 한다] 하더군요.”

태수는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처음에 태어난 아이는 반남 박씨로 하고, 나중에 태어난 아이는 무안 박씨로 삼는 것이 옳겠구나.”

반남 박씨와 무안 박씨는 사실 여기에 기인한 것이다.

- 반남·무안, 潘南務安³²⁾

「반남무안(潘南務安)」에서 음담은 양반 성씨를 희화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반남 박씨와 무안 박씨의 시조가 추한 처녀와 노총각이 간음해 낳은 쌍둥이이며 ‘음문이 발딱발딱하더니 나중에는 무안해진 사태에서 비롯되었다는 조롱인 것이다. 「현풍밀양(玄風密陽)」도 비슷한 유형의 성씨 희화화 설화로 양반에 대한 조롱과 비꼽이 음담 속에 녹아있다. 광거사(狂居

32) 醜女年過三十，而不得適人。春日載陽，携筐出郊，露其陰門，以裳覆面而臥，使行人縱意淫之。過半晌，而無人顧者。西日將傾，有老總角糾髻攀 밭者，來見而喜曰：“吾年過三十，而不味陰門，是天之賜也。”因覆而淫之，翻身而走。醜婦欲執而同居，追之不及。自是月有孕，而生雙子，不知父性。逐入官乞性曰：“妾於某田，會一丈夫相合，丈夫不告性而走，生子無以爲性。願使道賜性於吾子。”太守使吏覓其田，田稅十八卜，因曰：“十八卜合爲朴字，因性朴則可矣，而亦不可不賜性鄉。”問於女曰：“相合時情景，何如？”女曰：“初則陰門潘南潘南[邦言自跳曰潘南潘南]，後則無顏[邦言愧赧曰無顏]”太守笑曰：“然則使初生子潘南朴，後生子無顏朴，可也。”潘南朴氏及無顏朴氏，實起因於此。

土)는 현풍 곽씨와 밀양 박씨를 ‘곽 박으면(玄風蜜陽)’이라는 시구로 창작하고 ‘술과 계집의 즐거움은 삼공三公과도 바꾸지 아니할’ 것이라고 외친다. 음담을 통해 양반 성씨를 조롱할 뿐 아니라 유교 사회의 질서 또한 부정하고 있다.

이밖에 널리 알려진 대유학자나 왕족과 그 친인척을 음담의 주인공으로 삼고 있는 이야기 역시 눈에 띈다. 「역와시유(易瓦示諭)」에서는 남녀의 성체위를 논하는데, 주인공이 동양위 신익성과 선조의 딸 정숙옹주이다. 첫날밤 여성 상위자세를 고집했던 공주가 다음날 부마의 농담으로 망신을 당했다는 이야기이다. 「보지자지(寶之刺之)」는 한 선비가 퇴계 이황과 남명 조식에게 이들의 덕을 시험하기 위하여 ‘자지’와 ‘보지’가 무엇인지 물어봤다는 이야기로, 질문 자체를 무시한 남명 선생과 달리 질문에 성실히 답한 퇴계 선생의 덕이 높다고 결론짓는다. 대유(大儒)조차 성적 이야기의 대상으로 끌어들여 조롱함과 동시에 권위의 상징에 도전하는 것이다. 음담의 주인공을 굳이 널리 알려진 사 계층과 왕족의 특정 인물로 설정한 것은 상층 계층을 조롱하고 비꼬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서사복첩(筮仕卜妾)」은 정조의 장인이자 혜경궁 홍씨의 부친인 조정의 영수 홍봉한을 주인공으로 하는 이야기인데, 인물의 부정적 측면이 부각되는데 점에서 「역와시유(易瓦示諭)」나 「보지자지(寶之刺之)」의 조롱을 넘어선 비판의 의미까지 담고 있다.

(전략) “자네는 내 첩을 간음할 수 있겠나?”

“대감께서 만약 허락해주신다면 소인은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병조판서는 곧바로 첩을 불러 마룻바닥에 눕게 한 후 현무변에게 말했다.

“한번 간음해보게.”

현무변은 그 첩을 눕히고 간음하였다. 그리고는 몸을 돌려 일어나더니 큰 몽둥이로 여인의 엉덩이를 힘껏 치며 말했다.

“음문의 열기가 이처럼 세니 불이 날 지경이구나. 이 여인에게 물을 퍼부어 불을 꺼야겠도다.”

병조판서는 웃으며 말했다.

“진실로 장부일세.”

그러고는 장무변에게 말했다.

“자네는 헛되이 먹고 마시고자 내 문하에 의탁하였으니 어찌 국가에 뜻을 두겠는가?”

이에 배불리 먹이고는 돌려보냈다. 그리고 첩은 현무변에게 주고 선사포 첩사(宣沙浦僉使)를 제수하였다. 이무변은 선전관(宣傳官)으로 삼았다.

- 처음으로 벼슬길에 나아가고 첩도 얻다, 筮仕卜妾³³⁾

홍봉한의 문하에 있던 장씨, 이씨, 현씨 성을 가진 세 무변은 각각 대감처럼 배불리 먹는 것, 대감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것, 대감의 첩을 간음하는 것을 소원한다. 이에 홍봉한은 세 무변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세 명 중 홍봉한이 가장 높이 평가한 인물은 첩을 강간한 현무변이었다. 다음은 대감의 다리를 부러뜨리려 들진한 이무변,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사람은 배불리 먹기를 바란 장무변이었다. 이는 홍봉한이 중요시하는 가치를 말해준다. 즉 일탈적 성과 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첩을 욕보이게 하고 “진실로 장부”라며 웃으며 상까지 내리는 홍봉한의 모습은 잔인하고 비뚤어져 있다. 「서사복첩(筮仕卜妾)」은 당시 최고 권력자의 일탈적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두 가지의 효과를 동시에 거두고 있다고 보인다. 즉 기존 질서와 지배 계층 모두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때의 웃음에는 대상에 대한 동정과 화해가 아닌, 날카로운 공격과 분노가 숨어 있다고 할 것이다.

33) (전략) “子能奸吾妾乎?” 對曰: “大監若許之, 則小人必不辭.” 兵判乃呼妾而使臥廳下, 謂曰: “子能奸, 奸之.” 武弁遂覆而淫之, 躡身而起, 伸大杖而猛擊女臀曰: “方陰門熱甚熾, 而火將出, 是女放水而滅火耳.” 兵判笑曰: “誠丈夫也.” 謂張武弁曰: “子徒哺啜, 而來寄於吾門, 安能志於邦家乎?” 遂厚饋而歸之. 乃以其妾與之玄武弁, 除宣沙浦僉使, 李武弁爲宣傳官.

3) 관찰자적 시점과 객관적 서술 태도

비인간적 인물형, 양반 풍자 소재와 더불어 『각수록』의 풍자미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하는 것은 관찰자 시점에 가까운 서술자의 객관적 서술 방식과 태도이다.

「역우환처(易牛換妻)」를 살펴보자. 「역우환처(易牛換妻)」는 「부이접형(附耳接型)」, 「습사부족(習事付足)」과 유사한 화소를 지닌 이야기인데, 인물들이 서로에게 주는 피해가 고의가 아닌 실수에 의한 것이라는 차이가 있다.

(전략) 그는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알고 마음껏 간음하였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옆에 있는 사람은 곧 사부인이 아닌가! 그는 매우 부끄러워 하면서 다시 소를 타고 돌아오는데, 길에서 두 사람이 마주쳤다. 두 사람은 서로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하룻밤 부인이 바뀐 일은 당신과 나만 알고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해서 안 된다.”

그러고는 서로 웃으면서 헤어졌다.

- 소를 바꾸더니 아내까지 바꾸다, 易牛換妻³⁴⁾

사돈 간에 소를 바꾸어 타고 시장에 갔다가 술을 진탕 마시고 취해서 소가 이끄는 대로 서로의 집으로 간 두 사람은 사부인들과 성행위를 한다. 이들이 서로에게 준 피해는 실수에 의한 것이나, 이 실수는 근친상간과 부부 교환이라는 충격적 내용이다. 이들은 다음 날 다시 만나서 없던 일로 하자며 ‘웃으면서 헤어진다.’

「역우환처(易牛換妻)」의 인물들은 반인륜적 사건을 저지르고서도 태연하게 행동한다. 서술자는 이를 객관적 태도로 서술하며 조화로운 화해의 결말인 양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다. 내용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이보다 더욱 문

34) (전략) 認以爲妻, 恣意淫之. 朝起視之, 乃查賴之妻也. 乃大慚, 復騎牛而返, 相遇於途. 兩人相揮而語曰: “一夜易妻, 我知子知, 亦復使人知之.” 相笑而別.

제시되는 것은 반인륜적 성행위를 한 인물들이 보이는 태연한 말과 행동, 그리고 이를 대하는 서술자의 태도이다.

「습사부족(習事付足)」 역시 마찬가지이다. 형부가 처제에게 첫날밤을 연습시켜주겠다고 간음하고, 제부가 임신한 처형에게 아이의 팔과 다리를 만들어 주겠다고 간음하는 이야기의 결말은 섬뜩할 만큼 태평하고 화해롭다.

(전략) 선비는 크게 화를 내며 말했다.

“내 이 무례한 놈을 반드시 죽이리라!”

그러고는 큰 도끼를 지니고 동서의 집으로 급히 와서, 문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쳤다.

“어전(御前)의 청룡기냐? 진두(陣頭)의 대장기냐? 다리를 붙인다는 것이 다 무엇이나?”

그의 동서도 나와 성난 눈으로 바라보며 대답하였다.

“해동(海東)의 푸른 매[蒼鷹]냐? 새상(塞上)의 흰 매[白鷹]냐? 일을 익힌다는 것이 다 무엇이나?”

그러나 선비는 껄껄 웃으며 말했다.

“피차 같은 것일세.”

마침내 두 사람은 처음처럼 사이 좋게 지냈다.

- 일을 익히고, 다리를 붙이다, 習事付足³⁵⁾

서로 크게 화를 내던 두 사람은 껄껄 웃으며 ‘피차 같은 것’이라고 하면서 ‘처음처럼 사이 좋게’ 지낸다. 서술자는 이런 인물들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여 서술할 뿐이다. 인물의 심리적 상태는 ‘화를 내며’, ‘껄껄 웃으며’ 같은 행동의 서술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데, 극과 극으로 이동하는 감정 변화로 인하여 오히려 인물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전반적으로 『각수록』의 인물들은

35) (전략) 士人大怒曰：“吾必殺無禮是夫矣。”携大斧而徑往同壻之家，立門而呼曰：“御前之青龍旗耶，陣頭之大將旗耶？付脚者何耶？”同壻出門，怒目而對曰：“海東之蒼鷹耶，塞上之白鷹耶？習事者何耶？”士人啞然大笑曰：“彼此同矣。”遂相好如初。

일상적 윤리 기준에서 벗어나는 파격적 행동을 서슴없이 한다. 따라서 서술자의 인물에 대한 관찰자적 태도만으로는 인물의 행위나 동기는 충분히 이해되지 않는다. 이렇게 인물들의 반인륜적 행위와 서술자의 관찰자적 태도는 서로 맞물려 독자의 공감적 이해와 몰입을 방해한다.

『각수록』의 서술 시점은 작가 관찰자 시점과 전지적 작가 시점이 혼재되어 있다. 「화산거사전」, 「역장군전」, 「현풍밀양」은 작가 관찰자 시점이지만, 나머지 소화는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서술자의 태도는 공통적으로 관찰자 시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부러워하며’, ‘기뻐하며’, ‘분을 참아가며’ 등과 같이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내면을 언급하는 단편적 기술을 제외하면 서술자는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 태도로 인물과 상황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술자의 관찰자적 태도로 인하여 인물의 내면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사건은 객관적으로 기술된다. 특히 인물의 행동이 비약으로 보일 만큼 파격적이라면 한두 단어의 감정 형용사로 인물들의 행위의 동기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을 것이고, 독자들은 이야기에 비판적 거리를 취하게 될 것이다.

등장인물의 생각이 좀 더 드러난 소화도 있다. 「양도상혼(兩鈞相婚)」, 「할비도혼(割臂圖婚)」, 「최복오부(衰服誤夫)」, 「후공소과(後孔小科)」에는 등장인물의 생각이 서술된 부분이 나온다. 그러나 이러한 서술은 인물들이 서로 속고 속이는 사건의 과정을 설명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일례로 「할비도혼(割臂圖婚)」에서 ‘이처럼 매서운 선비는 없으리라’라고 선비에게 속아 넘어가는 여인의 생각이 서술된다. 그러나 이 부분 외에 서술자는 인물들의 말과 행동을 상세하고 객관적으로 묘사할 뿐이다. 수절하는 과부를 범하려 거짓된 행동을 꾸며 내는 선비의 암중모색 끝에 결국 과부가 속아 넘어가 검탈당하는 이야기에서 독자들은 비정함을 느끼게 된다.

『각수록』의 소화는 서술자의 논평이 사라지고 서술자가 인물의 행위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이야기성이 강화되고 있다. 『어면순』에서 서술자가 과장되고 희화화된 서술을 통해 독자의 인물에 대한 공감의 웃음을 유도했다면, 『각수록』에서는 거리를 두는 관찰자적 태도로 사건을 서술함으

로써 독자의 공감과 몰입을 차단한다. 서술자의 이러한 서술 태도는 이야기에 대한 독자의 즉각적 참여보다 비판적 시선을 가지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각수록』의 성소화는 일그러진 성을 그려냄으로써 사회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 자체를 부정하고 조롱하고 있다. 독자에게 인간의 어리석음과 악덕을 폭로하고 비정한 쾌감을 전해주는 『각수록』의 웃음은 중세의 질곡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혼란기에 처한 찬자의 갈등과 울분을 성(性)이라는 금기의 위반을 통하여 담아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본 논문은 『어면순』과 『각수록』의 골계미를 구체적 작품 분석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조선 전기와 후기 성소화의 상이한 웃음의 방식을 비교하고 있다. 조선 전기와 후기를 대표하는 성소화집으로 각각 『어면순』과 『각수록』을 선택하여, ‘해학’과 ‘풍자’라는 틀로 논의를 이끌어 가고자 했다. 구체적 작품 분석을 통하여 『어면순』은 해학미를, 『각수록』은 풍자미를 보여주고 있음을 논증함으로써 조선시대 성소화의 흐름을 골계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했던 소기의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해학’과 ‘풍자’라는 틀은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배제함을 뜻하는 배타적 개념이 아니며, 골계미의 구현 양상을 대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개념화임을 밝힌다. 또한 『어면순』과 『각수록』뿐 아니라 다른 여러 패설집을 두루 살펴본다면 조선시대 성소화의 골계적 흐름을 더욱 정교하게 파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어면순』은 성(性)을 인간의 기본적 욕망으로 인정하고 이로 인한 인간의 어리석음과 모순을 온정적 태도의 해학미로 감싸는 데에 반해, 『각수록』은 일그러진 성(性)을 비판적 시선으로 그려냄으로써 사회의 이데올로기를 부정하고 이를 넘어서고자 하는 풍자미를 보여준다. 『각수록』은 반사회적, 비윤리적 성을 집중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대표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성(性)을 통한 사회 비판이라는 조선 후기 성소화의 특징

을 뚜렷하게 보여주며 조선 전기 성소화와의 차이점을 극명하게 부각한다.

『어면순』 성소화의 해학적 요소로는 과장되고 희화화된 인물형, 장면의 집약적 연출, 공감적 웃음으로 결말을 짓는 서술 방식,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인하여 독자가 서술자의 희화화된 서술 태도를 수용하게 되는 점 등을 꼽았다.

『각수록』 성소화의 풍자적 요소로는 비인간적 인물형, 양반에 대한 풍자 소재, 서술자의 관찰자적 태도로 인하여 인물의 내면 묘사가 절제되고 상황이 객관적으로 전달됨으로써 독자가 이야기에 비판적 거리를 취하게 되는 점 등을 꼽았다.

『어면순』의 성소화는 해학미를, 『각수록』의 성소화는 풍자미를 보여준다. 이는 찬자의 세계관이 투영된 결과이며 이를 통하여 조선 전·후기의 사회적 분위기와 상황까지 추론해 볼 수 있다. 해학은 비교적 안정되고 개방적 분위기의 시대적 상황에서, 풍자는 가치관이 정립되지 못한 불안정한 사회 환경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이다.

조선 전기 성소화에는 사대부의 세계관이 투영되어 있으며 비공식적 영역에서 사대부들의 문화로 향유되었다. 『어면순』의 성소화는 향촌 사람들의 구비적 이야기가 다수 수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사대부적 가치를 깨뜨리지 않고 해학적 요소를 통해 당대 사회와 조화를 이룬다.

반면 조선 후기의 성소화인 『각수록』은 일그러진 성을 통해 당대의 사회적 이데올로기를 부정하고 지배 계층인 양반에 대한 조롱과 비꼼을 보여주는 데에까지 나아간다. 이는 풍자를 넘어선 본격적인 사회비판으로까지 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1. 자료

- 김준형, 『조선후기 성소화 선집』, 문학동네, 2010.
민속학자료간행회, 『고금소총』, 민속원, 1958.
시귀선 외, 『고금소총』, 한국문학사, 1998.
윤석산 편역, 『어면순』, 문학세계사, 1999.

2. 단행본

- 김열규, 『왜 사나면... 웃지요』, 궁리, 2003.
김영준, 『한국문학의 골계연구』, 태학사, 1993.
김준오, 『한국 현대 장르 비평론』, 문학과 지성사, 1990.
김준형, 『한국패설문학연구』, 보고서, 2004.
황인덕, 『한국기록소화사론』, 태학사, 1999.

3. 논문

- 강상순, 「조선 전기 성소화의 향유 양상과 존재 논리」, 『Journal of Korean Culture』 22, 2012.
김영준, 『조선조 문헌소화의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김준형, 「『각수록』에 나타난 성과 그 의미」, 『국어문학』 40, 2005.
류정월, 「성소화 텍스트 향유와 성적 정체성」, 『구비문학연구』 25, 한국구비문학회, 2007.
유해인, 「어면순 소재 성소화의 서사 논리와 그 의미」, 『어문논집』 86, 민족어문학회, 2019.
윤석산, 「『어면순』 연구」, 『한국언어문화』 18, 한국언어문화회, 2000.
이지환, 「문헌 육담의 성 경제와 남근자본주의 비판 - 『어면순』, 『속어면순』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46, 한국고전연구학회, 2019.
임완혁, 「송세림론 - 『어면순』의 창작배경에 대한 일고 -」, 한문학보 제14호, 2006.
정병설, 「조선 후기 성의 실상과 배경 - 『기이재상담』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64,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0.
정환국, 「초기 소화의 역사성과 그 성격」, 『한국한문학연구』 49, 한국한문학회, 2012.
황병익, 「눈물 속의 웃음, 한국 해학의 전통」, 『우암사려』 11호,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1.

Comparative study of Sexual Funny Stories in 『EoMyenSun』 and 『GakSuRok』 Focusing on the different modes of humour

Hong Seohee*

This paper explores the differences between the sexual funny stories in 『EoMyenSun』 and 『GakSuRok』, specifically in relation to the different modes of humour. 『EoMyenSun』 and 『GakSuRok』 were examined respectively, as the representative collections of the early and the late Joseon dynasty, and the form of golgye (蜜稽) was analyzed to reveal the ways of humour. Detailed analysis revealed the humorous elements of 『EoMyenSun』 and the satirical elements of 『GakSuRok』.

The humorous elements of 『EoMyenSun』 include exaggerated and caricatured characters, the final scene deriving from ridiculous events, and the omniscient writer's point of view that allows readers to accept the narrator's caricatured narrative attitude.

The satirical elements in 『GakSuRok』 include inhuman characters, satirical material of sadaebu(士大夫), and the author/observer's point of view that induces readers to take a critical distance from the story for the inner description of the characters restrained and the situation is objectively delivered.

Key words: Sexual Funny Stories, 『EoMyenSun』, 『GakSuRok』, golgye(蜜稽), humour, satire

논문투고일: 2023년 10월 19일 || 심사완료일: 2023년 11월 9일 || 게재확정일: 2023년 11월 20일

* Researcher at Center for Korean Literature & Language Education in Korea University